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분석연구

A Study on the Literature Analysis for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Development

신화경* 이준민** 조인숙***
Shin, Hwa-kyoung, Lee, Joon-min, Jo, In-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aning about community and programs of community cases for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develop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literature and internet about community. Analyze community connection virtue research and domestic·outside community cases and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howed as followings ; First, community which could preserve social interaction and continuous relation developing community activation program. Second, community could divide to ecotype community, life style community, school style community, bloc economy type community. Third, program of enforcing community activation was education, residing, employment connection program mainly.

Keywords : Community, Program, Literature analysis

주요어 : 공동체, 프로그램, 문헌분석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의 해체현상과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공동체를 중요한 정부과제로 인식하여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선진 생활공간의 확립’을 기본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6). 여기에 도시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민운동, 아파트 단지 내의 동호회 활동 등 자치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양과 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이 기대하는 질 높은 수요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를 분석 정리하고 공동체 사례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와 국내·외 공동체 사례를 분석하고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국내·외 공동체 사례 분석을 위해 ‘공동체’란 키워드를 이용하여 국내 공동체 사례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이들 공동체의 프로그램 및 운영을 포함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동체’ 키워

* 정회원(주저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정회원(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주거환경전공 박사수료

*** 정회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주거환경전공 박사수료

이 논문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도시재생B0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드로 검색된 사례는 국내·외 총 11사례로 이를 분류 정리 하였으며 선행연구 자료에서는 공동체의 의미와 유형에 대한 분석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2. 공동체

공동체란 사전적 의미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등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인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집단, 제도 등을 의미한다.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이후 한 사회의 가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주로 사회학 분야, 경제학 분야,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에 대한 각 분야의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박광재 외, 2001). Defluer는 공동체를 어느 특정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보았다. Wilson과 Schulz는 공동의 이해와 함께 일차적으로 장기적 상호작용의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보았다. Hillery는 공동체를 일정영역을 차지하는 지역성과 이 집단 내의 사람들을 동질적 문화, 태도 그리고 공감하는 정체성 및 이웃관계와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성으로 정의한다(하성규 외,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지역성, 긴밀한 사회적 상호관계, 동질적인 유대감과 이런 속성을 토대로 공동체란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활발한 교류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공동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소속감을 가진 지역적 사회집단으로 정의한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파생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운동을 최병두(2006)의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로 사회공동체,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병두(2006)의 공동체 유형 구분은 이들 유형을 통해 복합된 형태로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박용남(2006)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자생적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봉사하고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과제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성경룡(2006)의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사업부분은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학교·의료 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농촌 만들기 등 3개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1. 공동체 운동의 주요 내용과 혁신 및 자본의 유형

구 분	주요내용	지역혁신의 요소
사회 공동체	- 주거에 기초한 생활공간 개선 - 교육,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	네트워크화 신뢰관계, 사회적 서비스
생태 공동체	- 오염 없는 생태환경 조성 - 자원 절약형 생활환경 조성	자연복원, 오염통제, 에너지 효율성
경제 공동체	- 지역 고유 브랜드 만들기 - 장소 마케팅의 활성화	문화경제, 정보화, 사회간접자본
문화 공동체	- 전통, 고급문화의 확산 - 건축미관 및 마을 경관의 개선	문화적 생활양식과 규범, 정체성

출처 : 최병두(2006),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4). pp.518.

표 2. 지역의 공동체 사업

부 분	세 부 과 제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 마을 행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하기 - 마을단위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하기 - 자원봉사 캠페인과 언론매체를 통한 모범사례 소개
학교·의료 공동체 만들기	-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 활용 - 지역별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산어촌 폐교를 지역교류의 장으로 활용 -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 방문과 간병 -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의료봉사활동의 활성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시·농촌 만들기	-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 - 직업교육을 통한 청소년 취업 지원 - 청소년 범죄 예방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 만들기 - 고령자와 장애인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계층혼합으로 함께 사는 주거 공간 만들기

출처 : 성경룡(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비전과 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25.

이렇듯 연구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체는 다양하게 유형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크게 생태형 공동체, 학교형 공동체, 생활형 공동체, 지역경제형 공동체로 구분하여(표 3 참조), 각 공동체의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3. 공동체별 특징

구 분	주요내용
생태형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생활함 - 친환경 생태 환경 조성 - 에너지 절약
생활형 공동체	- 같이 생활하며 공동 식당, 공동육아 등을 실시함 - 주거지에 기초한 생활공간 공유
학교형 공동체	- 자유롭고 학생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공동체 - 숲터와 일터, 배움터가 하나인 공동체 - 대안학교 개념으로 시작함 - 자연과 모든 마을이 교육의 터전으로 봄
지역 경제형 공동체	- 지역 통화(머니)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함 - 지역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 - 생활협동 조합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이곳을 통해 생필품을 구입함

3. 공동체 사례 분석

공동체의 형태는 크게 생태형 공동체, 학교형 공동체, 지역경제형 공동체, 생활형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공동체의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 생태형 공동체

1) 국내 - 부안등용마을

부안등용마을은 2004년부터 시민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생태형 공동체이며, 주민 스스로 시민발전소를 세우고 이곳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곳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마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설치되는 시민 햇빛발전소는 총 36kw이며, 이 정도 규모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의 약 60%는 주민 스스로가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이 마을 총 에너지의 50%를 자력으로 만들어보자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2) 국외

(1) 포르투갈 타메라(Tamera) 생태마을

포르투갈 남서해안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섬에 건설된 생태마을로 미래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평화사업의 하나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작은 생명공동체를 만들고자 여성주의자 '사비네 리히텐펠스'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여성성에 기초한 치료의 힘을 믿고, 여성적이며 정신적인 각성에 기반을 둔 인간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자연과 모든 생명체와의 협력, 전 지구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적 이론을 탐구하면서 1999년부터 'Global Learning'이란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 방법은 종교나 이념에 상관없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열린 자세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공동체의 예술작업으로 벽화와 건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독일의 잭(ZEGG)

독일의 잭 공동체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여자 41명, 남자 33명, 어린이 13명으로 총 87명의 구성원이 생활하는 생태공동체이다. 문화재보호에 속한 건축물들(옛 구동독 정보부 건물) 사용하며, 부지에 맞는 경관생태학을 활용하고 생태계 순환을 돕는 상하수도 시설과 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퍼머컬처라는 영속적인 유기농업으로 식생활을 하고 있다. 공동체 내 지역사회와 국제적인 생태공동체와 함께 하며 국제적인 여름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생태문화중심센터로서 실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마다 선정되는 주제로 여름캠프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전선자, 2007).

1.2 학교형 공동체

1) 국내 - 변산 공동체

1996년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서 시작되어 마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와 공동체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변산 공동체 학교는 '숲터와 일터, 배움터가 하나임' 공동체이면서 배우면서 나눔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이 학교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속의 온갖 생물을 직접 접하고 관찰 하면서 자연을 이해하는 동시에 인간의 선천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머리보다 가슴에 의한 교육 즉, 감각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억지로 또는 엄격한 틀에 얽매인 공부를 하지 않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하고 있으며 이를 놀이 교육이라 표현하고 있다. 끝없는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기존의 교육과 달리 여기에서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표현교육이라 하고 있다(이정원, 2001).

2) 국외 - 영국 다벨 브루더후프(Darvell Bruderhof) 공동체와 학교

생활과 신앙, 학교 및 노동체험 등 아주 색다른 체험을 하는 공동체로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8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여러 나라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은 주로 신앙과 자연 안에서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주로 가정 단위로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다벨 브루더호프와

남쪽 해안에 있는 비치그루브 브루더호프가 있다. 그리고 이들 각 지역의 공동체들은 서로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 약200여명의 구성원이 있는 이곳은 초기 기독교 생활양식을 따르는 공동체이며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없지만 성서의 말씀을 따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을 한다. 브루더호프는 학교, 어린이 놀이감 공장, 공동식당, 초원과 농경지, 여러 가옥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고, 이곳의 교육은 자연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 자체가 교육이 된다는 신념으로 학교 교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마을 전체를 교육의 터전으로 쓰고 있다.

1.3 생활형 공동체

1) 국내 - 성미산 공동체

성미산 공동체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일대 10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운동의 선두주자이며, 이곳은 1994년 젊은 부모 30쌍이 60평대 단독주택을 구입해 공동육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열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2년 주민문화센터 꿈터를 시작으로 2004년 12년제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 풀뿌리 생활정치 시민단체인 마포연대 등이 생겨났고 2007년 지역 라디오방송국인 마포FM도 개국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가게인 동네부엌, 카센터인 성미산 차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미산 차병원과 동네부엌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익이 남으면 공동체에 환원하고 있다. 성미산 공동체는 생활을 기반으로 교육, 경제, 육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2) 국외 - 독일 뮌헨의 여성주거공동체

공동체의 본질은 '모여살기'다. 독립은 좋지만 고립은 싫은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혈연삼아 사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독일 뮌헨의 옛 공항부지에는 49가구가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른 다양한 여성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독신 한 가구의 방은 45~60㎡(14~18평), 공동 공간인 부엌 딸린 회의실과 마당, 창고 등이 따로 있다. 출발은 불가능한 공상 같았다. 집 없는 설움 없이, 연령과 국적을 떠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기.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2000년부터 240명의 여성이 각각 150만원씩 각출해 조합을 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7년 만에 집이 완성됐다. 출자금 3000만~5000만원, 월세 40만~60만원 정도를 내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집은 조합의 공동 재산이므로 소유권은 없고, 이사 갈 때는 조합원 권리를 반납하고 출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곳에 사는 50여명의 여성들은 현대사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을 메우려고 계속 노력 중이다. 공동육아 프로그램이나 실업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 돕기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들은 지난해 바이에른주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주거단지'상을 받기도 했다.

1.4 지역경제형 공동체

1) 국내

(1) 한발레츠

지난 2000년 시작돼 국내 최대 지역통화운동으로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2007년 말 7500여건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해 총 1억4200만원어치의 거래가 이뤄졌다.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는 '지역교환거래체계'란 뜻이다. 여기서 쓰는 화폐 단위는 '두루'로 '1000두루=1000원'의 가치를 가지며 화폐는 직접 발행하지는 않고 거래소의 계정을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구조다. 한발레츠 안에 80여 회원업체는 의료, 농산물, 자원활동, 후원활동 및 어린이 봐주기와 과외, 대체 의료 등 지역 경제와 지역 복지여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송파품앗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의 분야별 수급을 맞추기 위해 시작됐고 현재 '송파머니'란 화폐를 통해 회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강좌, 집수리, 자녀교육, 재활용, 가정도우미 등을 거래하고 있다. 이 밖에 안산의 고잔 머니는 회원 간 물품, 음식, 옷수선, 도배를 거래하며 광명의 광명 그루도 각종 지역가맹점에서 '1그루=1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2) 국외

(1) 스페인 몬드라곤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피레네산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몬드라곤은 한때 쇠락한 광산촌이었으나 1956년 몬드라곤 그룹(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MCC)만들어 2006년 현재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 연간 매출 7위, 일자리 창출규모로는 3위를 차지하는 대기업이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아에타 신부와 마을 주민 수십명이 MCC의 모태가 된 '울고르(ULGOR)'라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주민들이 모은 1100만세타(약 36만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했다. MCC의 성공 이유는 기업이 주민들의 삶과 일체화된 데 있다. 몬드라곤 인구 2만 5000여명 중 노동가능 인구는 1만 3000여명 정도인데, 이 중 3분의2가량인 8300여명이 MCC의 조합원이다. 이들은 몬드라곤 그룹 산하의 금융기관인 '카하 라보탈(노동인민금융)'에서 대출받고 산하 소비협동조합인 '에로스키'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산다. 또 이들 자녀의 상당수는 MCC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몬드라곤 기술대학을 졸업한 뒤 MCC에 취직한다.

(2) 밴쿠버의 '100마일 먹거리 사회'

자기 지역의 먹거리를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운동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의 하나다. 그러나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이 운동이 지역사회 경제를 촉진시키고, 저소득층을 돕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공공텃밭(Community Garden)을 통해서다. 공공텃밭은 버려진 조

각 땅에 텃밭을 일구는 운동이다. 나만의 뒤뜰, 줄여서 ‘모비(MOBY·My Own Back Yard)’라고도 한다. 누구든지 1년에 20달러만 내면 땅을 얻을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밴쿠버에는 총 18곳에 950개의 공공텃밭이 조성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 시민의 44%가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먹거리를 텃밭에서 직접 가꾸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밴쿠버식량정책협의회는 밴쿠버 올림픽이 열리는 2010년 1월1일까지 총 3000개의 텃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6년 밴쿠버 시의회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해 시 소유의 공원, 공터 등을 공공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공공텃밭 운동을 통해 밴쿠버식량정책협의회는 ‘뒤뜰 나누기(Sharing Backyard)’운동처럼 직접 기른 먹음거리를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관련 문헌 및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공동체 사례별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상호 동일한 이념 혹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으로 인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로써 이해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기반하여 구성원 간 공동의 결속감 아래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유지·개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참여,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결속력과 소속감을 배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는 크게 생태형 공동체, 생활형 공동체, 학교형 공동체, 지역경제형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생태공동체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중시하면서,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형 공동체는 주거지를 같이하는 생활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같이 생활하며 공동식사, 공동육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형 공동체는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자유롭고 학생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로 자연을 토대로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형 공동체는 지역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지역통화와 생활협동 조합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이 함께 생활하고, 주민의 협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동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이들의 프로그램적 특성은 모든 공동체 유형에서 함께 주거지를 새로 만들고

함께 개량하는 등의 주거관련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학교형 공동체의 대안학교 개념, 자연학습 등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지역경제형 공동체의 지역기반 기업, 생활협동 조합, 지역통화 등의 고용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제공하고 있어, 현재의 공동체들은 주로 교육, 주거, 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2006). 제 4차 국토종합계획.
2. 박광재(2001),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3. 박용남(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 ; 정부, 지자체, 전문가, 시민의 노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432~454.
3. 성경룡(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비전과 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12~39.
4. 이정원(2001). 대안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전선자(2007). 독일 생태공동체와 한국의 생태마을 만들기에 나타난 예술문화 활용과 인문학적 사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57~188
6. 최병두(2006).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4). pp.513~528.
7. 하성규(2003). 한국도시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2007).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